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지난 2006년 4월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K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후 광주를 방문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의 동선을 짜는 데 필요하며 공동 '예술의 거리'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예술의 거리에서 꼭 봐야 할 명소들과 사람들이 많아 피해야 할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2박3일간의 빠른 일정에서 굳이 예술의 거리를 고집하는 이유를 묻자 '예술의 거리'를 보고 싶다는 대사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했다.

술의 거리 현주소다. 그렇다고 예술의 거리가 처음부터 예술단지는 아니었다. 수십여 개의 화랑이 기획한 '공동미술제'와 개미장터가 인파로 북적거리는 '봄날'도 있었다. 하지만 '공동의 봄'은 너무 짧았다. 지난 97년 IMF 한파와 도심 공동화 등

예술의 거리 잔혹사

이뿐만이 아니다. '예술의 거리를 되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손님 끌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평일 저녁 8시면 문을 닫고 바쁘고 휴일에는 아예 철수하는 등 썰렁한 거리를 자초하고 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예술의 거리의 '수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시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예술의 거리 특화 사업 역시 걸뚫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예나장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최측만의 행사로 전락했다.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1명에 불과할 정도다. 이처럼 수많은 '공동 살리기 프로젝트'

이론 개미장터는 한 때 중국산이 등장하면서 발길이 끊겼다. 게다가 지난 2006년 사위어 가는 거리를 인공조명으로 밝혀줬다며 4억2천9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루미나리에는 공동의 품격만 떨어뜨렸다. 일부 상인들의 이기심 역시 예술의 거리를 병들게 했다. 지난 2000년 젊은 조각가들이 산뜻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시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20개의 대형 조각을 설치하려 했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술모없는' 조각 대신 하수구 정비 등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단지를 걸었다.

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반쪽 효과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전시와 판매 기능 중심의 현재와 같은 삭막한 환경에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공동의 봄'을 기다리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함유할 수 있는 상상공간이 '그곳'에 없는 한 당국이 내놓는 처방들은 '백약이 무효'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불러 모으는 묘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술의 거리는 머지 않아 추억 속에서나 존재할지 모른다.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나 비어 있는 건물에 예술의 거리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대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쇠락해가는 인사동을 젊음의 거리로 되살린 삼지길 사례는 검토해 볼만하다. 삼지길은 지난 2001년 인사동이 쇠락해가자 삼지패션이 빈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 공방, 갤러리 등으로 꾸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삼지길의 등장으로 인사동은 특화된 문화지구로 변신중이다. 예술의 거리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예향 광주의 심장이다. '공동의 부활'은 문화전당의 성과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한전 세종시 이전 꿈도 꾸지 마라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기능을 이관하겠다는 세종시 계획이 최근 정치적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이제는 '기업·과학의 메카'로 논의의 방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5+2 광역경제권' 등이 완전히 '찬밥'으로 전락하면서 정책추진 의지마저 실종되고 있다. 급기야 나주 혁신도시 이전 대상 중추 공공기업인 KEPCO(한국전력)의 세종시 이전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세종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이전기업을 재조정하는 등 혁신도시의 틀을 일부 흔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과 같이 이전 과급력이 큰 기업의 분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업들이 차라리 세종시로 보내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도 한전의 세종시 이전설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한전의 세종시 이전설 등 혁신도시의 재조정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만약 세종시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를 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 민심은 세종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자원 배분의 '뿔뿔현상'을 우려하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투자 및 세제상의 엄청난 특혜를 준다면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은 찾아볼 수 없을 게 뻔하다. 지방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이 국가 백년대계는커녕 당장 눈앞의 혼란만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를 위해 수도권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지방발전 계획들을 뿌리째 흔든다면 엄청난 혼란과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세종시 원안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충청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다수의 다른 지방을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정부가 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혁신도시의 기본틀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전의 세종시 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창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고3 교실에도 오랜만의 여유가 찾아왔다. 밤새 불야성을 이루던 교실도 밤이면 적막하기 그지없고, 대신 거리에서 생기 발랄한 그들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얼마 후 점수표 한 장을 들고 대학을 찾아 나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해방감과 여유는 한낱 환영(幻影)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실의 서글픈 단면이지만, 단 한 번

가능성을 발견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학력(學歷) 사회'에서 '학력(學力) 사회'로 바뀌고 있음은, 입학이 최종 승부처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수능 성적을 기다리고 여기에 맞추는 한, 사회의 요구에 타협하면서 안락점을 찾는 한 미래는 현실에 갇히고 만다. 1996년 미국 스탠퍼드대의 존 테일러 교수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진로 상담을

미래를 향한 희망과 노력

의 필기시험 결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쉽다. 중등교육의 목적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인격을 함양하고 잠재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한다는 명제도 사라졌다. 주위의 관심은 수능의 난이도, 예상 컷트라인, 맞춤형 대입 전략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현실을 추종하여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67만명의 수험생이 있지만, 정작 이들이 바라는 소위 명문대는 1만 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게다가 수능 당일 신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큼직하게 실려 있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55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원(2.0%)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20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3.4%) 줄었다. 따라서 올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47.2%에 그쳐, 지난해 49.9%보다 2.7%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완벽한 현실을 기대하고 살 수만은 없는 법이다. 역설적이게도 현실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희망과

의뢰받았다.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프로골퍼로 나가야 하는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바로 그 학생이었다. 빌 게이츠도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들이 대학을 계속 고집했다면?'이라는 가정은 현 우리의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는 갈댓잎이 나 띄울 수 있을 뿐이다. 커다란 배를 띄우려면 물이 깊어야 하지 않겠나? 바닷물이 작으면 커다란 배도 무력하게 엎들려 있을 뿐이지. 하지만, 거대한 바람을 타고 항공을 향해 오르면 파란 하늘을 등에 지고 마음껏 날 수 있지." 장자의 말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깊은 물, 거대한 바람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편안과 안일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건장한 에너지로, 창조적인 내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좌절감과 허탈함에 빠져있어도 나뉠 건 없다. 토익과 학점 등 이른바 스펙에 일희일비할 거라면 명문대 진학도 의미가 없음을 위안으로 삼자. 진급 승부는 이제부터이다. 성공은 미래를 향한 건장한 에너지와 일상의 꾸준한 노력에 있음을 잊지 말자. <광주 북성중학교 교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유순남



최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남이섬에 다녀왔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혹시 눈이라도 내린다면 겨울연가의 추억을 다시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런 나의 상상은 버스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 본 풍경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20여년 전 자연 그대로의 남이섬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선착장에서부터 온통 상품화된 듯 변해버린 그곳에 하루 수만 명이 북적대는 모습이 마치 해외의 관

로 한글로 쓰되 그 뜻이 일반화되지 못한 말들은 한자가 덧붙여진 신문이 함께 들어온다. 그런데 순 한글로 된 신문은 한자가 한 글자도 쓰지 않으면서 KBS나 DNA 등의 영어는 그대로 쓴다. 심지어는 오히려 영어표기가 더 낫다는 것까지 영어로 표기한다. 야구경기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지난 10월 어느 날 스포츠 면에 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향배를 심는 기사에 기아와 SK의 대결을 '침묵 타선 vs 지진 불펜'

한글 아이러니

광지를 걷는 것처럼 낯설었다. 무엇보다도 '나미공화국'이라는 단어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화 같은 표현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표지 석에 적힌 남이(南怡)라는 뜻이 온데간데없어 아쉬웠다. 가끔씩 타지방 여행을 하면서 마을 어귀에서 한글만으로 새겨진 고을 표지석을 보면 무슨 뜻이 담긴 이름일까 궁금해진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은 '수박담'이라는 조그만 산 위에 뜨는 달이 아름다운 동네이듯 우리 선조들은 고을 명에 반드시 그 고을의 특징을 담아 넣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예쁜 한글 이름이 유행하던 지금이 다시 한자이름으로 바뀌는 추세다. 지금 고등학생인 내 조카 이름은 '힘찬'이다. 어릴 적에는 참 귀여운 이름이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카는 놀림을 받는다고 개명을 원한다. 이름이란 평생을 쓰기 때문에 그가 청년이 되고 장년, 노인으로 가면서 점점 더 어색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집에는 순 한글로 된 신문과 주

이라는 제목으로 써여 있었다. 우리말 '과'를 쓰면 자연스러워한단 글이 'vs'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고사성어 다듬기'라는 코너에 한자어로 된 고사 성어를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글전용을 위한 억지라고 생각된다. 한자로 표기 하나 한글로 표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지 않을까? 한글의 우수성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안다. 그 과학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어느 소수 민족이 우리글을 수입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은 70% 이상의 어휘가 한자어로 되어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모르면 할 수 없지 않은가? 결론은 어디든 뜻을 구별하기 어려운 글자나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곳에는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표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학술초등학교 병과 후 한자부 담당교사>

공공시설 담배연기 비흡연자들에게는 곤욕

며칠 전에는 구입할 물건이 있어서 퇴근 길에 회사 옆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서 담배냄새가 풍겼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밖에서 피우던 담배를 들고 그대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남자는 일찍 나가지 않고 담배를 든 채 한동안 편의점에서 서성거렸다. 아르바이트생은 나가 달라는 말도 못한 채 다른 손님들의 눈치만 살폈다. 간단한 물건만 대충 사서 나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들어온 것 같았다. 본인은 잠깐 머무르니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냄새는 전혀 그렇지 않다. 손님이 나가고도 담배 냄새는 한참 동안 남는다. 물건을 사러 들어온 여성들이 이맛살을 찡푸리다 나갈 정도면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인지 어떤 편의점에는 "담배를 꺼주시고 들어오세요."라는 안내문을 붙이기까지 했지만 이것은 손님 줄어드는 이유로 잘 못 보인다. 그러나 남자 손님들 스스로 매너와 공동도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시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원희·광주시 동구 총장로 2가

'4대강'에 발목 잡힌 내년도 예산 심의

올해에도 어김없이 예산 심의가 표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4대강 예산' 논란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 국토해양위는 16일 예정됐던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한 채 20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 내역을 정부가 내용을 때까지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대 강 사업을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전략적인 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심의의 표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4대 강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가하천정비'란 명목의 3조7천350억 원과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총액계상 항목이 전부였다. 사업공

구별로 보 건설, 제방 보강, 생태하천 정비 등에 얼마가 필요한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4대 강 사업은 타당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따라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예산은 아니다. 민주당도 민생은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구현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4대 강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복지·세금·서민금융 관련 예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산심의를 야당의 존재이유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구체적인 4대 강 예산자료를 내놓아야 하고, 야당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無等鼓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에 '중국에서 배워야 할 다섯 가지'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타임은 중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미국에 줄 수 있다며, 이를 주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부패, 환경문제, 빈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족을 달긴 했지만, 타임은 먼저 미국이 남비현상과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로 인해 초대형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 반면, 전국에 걸쳐 1만6천km에 달하는 고속철도망을 확보한 중국의 '아심한 투자'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국이 수십 년간 산간벽지까지 교육시스템에 투자, 문맹률을 10% 아래로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도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문맹률이 여전히 14%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긍이 간다.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태도는 더욱 눈길을 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족

재정건전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타임은 '수많은 중국인이 오늘보다 밝은 내일을 향해 노력하면서 사회 전체가 전진하고 있다'며 '미국인도 지금 열심히 일하면 향후 수십 년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교육의 힘이나 윗사람 공경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뒤질 것은 없다. 그러나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과감한 투자나 높은 저축률은 분명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